

# 휘발유값 상승 1500원대 진입 '눈앞'

### 광주 1ℓ 당 평균 1489.55원...전남은 1491.91원 산유국 감소·미국 달러화 약세...상승세 계속될 듯

국내 휘발유값 상승이 45일째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도 15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의 상승세 탓에 당분간 기름값은 더욱 비싸질 것으로 보이며, 최저가주유소의 할인폭도 줄어들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휘발유(이하 1ℓ 당) 평균가격은 1489.55원, 경유 1282.15원, LPG 752.04원이었다. 전남지

역도 휘발유 1491.91원, 경유 1286.42원, LPG 743.39원으로 강세였다. 휘발유 가격의 전국 평균은 1507.93원으로 이미 1500원대에 진입했다. 기름값이 오르다보니, 저가 주유소와 여타의 주유소간 가격차이도 좁혀지고 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최저가 주유소 상위 5곳의 휘발유 가격은 1467원~1475원이며, 서구 1445원~1458원, 남구 1443원~1455원, 북구 1449원~1459원, 광산구

1437원~1445원이었다.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과 비교했을 때 고작 30원가량 산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휘발유 가격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소 이행, 미국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국내유가 강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기구(OPEC)가 지난해 9월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국제유가는 러시아와 멕시코 등 비 OPEC 산유국이 최근 속속 동참하면서 급등세를 타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배럴당 40달러대를 오가던 국제유가

는 12월 50달러선을 회복한데 이어 지난 9일에는 54달러까지 올라갔다. 업계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국내 기름값은 리터당 8.3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파악해, 현재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차이로 볼 때 올해 기름값은 리터당 17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2015년 9월 1511.5원에서 10월 1498.7원으로 떨어진 이후 1년 4개월만에 다시 1500원대로 진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중 통화량 2400조 넘었다



### 2406조3935억...사상 최대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으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24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6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을 보면 11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2406조3935억원(평잔·원계열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7.3%, 한 달 전인 10월(2391조592억원)보다는 0.6% 증가

한 것이다. 11월 M2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3%는 작년 3월(7.8%)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합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11월 M2는 원계열 말잔 기준(2404조원)이나 계절조정계열 평잔(2405조원)·말잔(2408조원) 기준으로도 모두 2400조원을 돌파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향기로운 출발

### 농협 광주지역본부 축하화분 나눔 경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 태선)와 사랑의 천사(1004)운동(운영위원장 구 희은)은 지난 11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축하화분 나눔 경매'를 했다. 축하화분 나눔 경매는 지난 2011년부터 인사철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된 화분을 모아 경매형식으로 필요한 직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전액을 사랑의 1004운동 재원으로 모금하는 행사다. 이번 축하화분 경매대금으로 마련된 163만원은 오는 2월 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우리지역 어려운 세대에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태선 본부장은 "올해도 광주본부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사랑의 1004운동을 더 활성화 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값고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고 먹는 공룡' 네이버 매출 3조원 육박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 3조원에 육박했다. 전국에 등록된 3700여개 신문사가 인쇄 광고로 거둔 매출 총액의 2배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다. 이는 또 전체 신문과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 매출 총액도 넘어서는 규모다. 12일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약 2조9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2015년(2조3224억원)보다 무려 30%에 육박하는 신장세를 나타냈다. 네이버는 특히 지난해 4분기에만 8천 10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의 1개 분기 광고 매출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지난해 국내 신문의 광고 매출이 총 1조 5395억원으로, 2015년의 1조5613억원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먼저 63개 신문의 광고 매출을 조사한 뒤 가중치를 부여해 전국 3천736개 등록 신문의 광고 매출 총액을 추산했다.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TV 광고와 비교해도 월등하다. 지난해 지상파 방송 3사는 KBS 약 4020억원, MBC 약 5000억원, SBS 약 3370억원 등 총 1조2390억원의 TV 광고 매출(협찬·지역민방 제외)을 거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소비부진 주범은 사교육...가구당 월 22만6576원

중저렴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소비 부진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학원비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입시 경쟁 탓에 한 시간에 수십만 원짜리 입시컨설팅을 받고 내신 관리와 수능 고득점을 위해 과목당 수 십만 원, 월 수 백만 원을 자녀 학원비에 쏟아붓고 나면 소비에 쓸 돈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국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는 한 달 평균 학원·보습교육에 22만6576원을 지출했다. 1년 전 2015년 3분기(21만4492원)보다 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이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증가율(1%)의 6배에 이른다. 아울러 1년간 소비 부진의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학원·보습 교육비 지출이 소득 증가에 비해 월등히 빨리 늘면서, 처분가능소득 가운데 학원·보습 교육비 등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5.4%에서 5.7%로 높아졌다. 사교육비 지출이 6% 늘어나는 동안, 식료품·비주류음료(-4%), 주류·담배(-1%), 보건(-8%), 통신(-3%), 오락·문화(-1%) 등의 소비는 오히려 일제히 줄었다. 결국,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가계가 먹는 것, 입는 것, 휴대전화 요금, 술·담배, 유희 등 다른 소비품목에서는 모두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가. /연합뉴스

# 한콘진 '2016 K-루키즈 파이널 콘서트'

### 21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서 올해 최고의신인 뮤지션 발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오는 21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올해 최고의 루키를 가리는 '2016 K-루키즈 파이널 콘서트'를 개최한다. K-루키즈는 한콘진의 신인 뮤지션 발굴·육성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공개오디

션을 통해 '더 한츠' '실리카겔' '스테레오타입' '이지호 트리오' '더 베인' '호랑이 아들들' '오리엔탈 소커스' '끝없는 잔향속에서 우리는' 등 총 8개팀을 선발했다. 한콘진은 이번 파이널 콘서트를 통해 이들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낸 1개팀을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K-루키즈 최종 우승팀에게는 대상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트로피와 300

만원,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파이널 콘서트에는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한 2016 K-루키즈 8개팀의 마지막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국내 정상급 뮤지션들이 자리를 함께한다. 한콘진은 이번 파이널 콘서트를 통해 이들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낸 1개팀을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K-루키즈 최종 우승팀에게는 대상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팀에게는 트로피와 300

공연은 전석 무료 초청으로 진행되며 공연 티켓은 K-루키즈 페이스북(facebook.com/K.Rookies), 멜론뮤직, 카카오톡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한콘진은 2016년에 K-루키즈로 선발된 8개팀이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선배 뮤지션과의 기획공연,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작, 페스티벌 출연, 각종 홍보·마케팅 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줬다. 8개팀의 1년 간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K-루키즈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